복합재료 분야 세계 석학 참여 성과 공유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 세계 최고 학회 '국제 첨단 재료공정 및 제조학회' 개최

전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첨단 기능성재료 및 구조용 복합재료의 공정 및 제조 분야의 세계 최고 학회인 '국제 첨단 재료공정 및 제조학회(PFAM-26)'를 개최했다.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일 직후인 16일 시작돼 일주일 간 대학에서 계속된 이번 학회에는 첨단 복합재료 분야 국내외 저명 학자 4백여명이 참여해 미래 복합재료의 공정 및 제조 산업의 최근 연구 결과들과 발전현황, 그리고 미래의 전망 등이 소개됐고, 국제 공동 연구 수행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 학회의 창설자인 미국 에크론대학의 스리바스탄 교수를 비롯해 이우일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인 카이스트 홍순형 교수, 호주 스윈번공대 대외 협력 처장 알란 라우 교수,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복합재료연구소장인 Debes Bhattacharyya 교수, 인도 스리 자야차마젠드라대학 시따라마이하 교수 등 복합재료 분야 세계적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각 연구 분야의 최근 연구결과들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첨단 기능성재료 및 구조용 복합재료의 공정 및 제조 분야의 세계 최고 학회인 '국제 첨단 재료공정 및 제조학회(PFAM-26)'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 복합재료, 스마트 재료, 구조 재료, 나노 재료 및 기술, 코팅과 박막필름 재료기술, 재료 부식 및 방지, 재료 및 공정에 대한 컴퓨터 해석 및 분석, 복합재료 제조에 대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13개국 2백60편의 논문이 접수·발표됐다.

또한 이 학회의 창립자인 미국 에크론대학 스리바스탄 교수는 마그네슘에 기반한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를, WCU 사업 1유형 선정을 통해 2009년부터 전북대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스윈번공대 알란 라우 교수는 탄소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17일 호주에서 나노탄소복합재료분야의 연구가 매우 활발한 스윈번공대와 전북대 간의 첨단 나노탄소 기반 소재 연구 센터의 공동설립을 위한 협약식 가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전라북도가 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직위원장인 이중희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다"며 "학회를 통해 미래 복합재료 제조 및 공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개발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탄소복합재료의 세계적인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 위해 발 벗고 나서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현장 면접 통해 총 50명 이상 채용 예정

전주시가 팔복동에 새로 둥지를 트는 자동차 안전벨트 제조 신생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청·장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4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만나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제8회 청·장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주새일센터가 함께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팔복동에서 자동차안전벨트를 제조하는 신생업체인 ㈜우주테크와 ㈜세원세이프티, ㈜비전산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자들의 신생업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취업 의지로 생산직을 희망하는 청·장년층 구직자 15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3개 업체는 이날 면접을 통해 총 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협업 행사로, 유관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협력으로 구직자 홍보와 행사운영을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날 참여한 신생업체들은 △전주시 팔복동 근거리에 위치한 점 △작업환경이 깨끗하고 근무여건이 우수한 점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 기존에 다니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출근을 못하는 구직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3개 업체의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 근무로, 상여금 250%를 포함해 월평균 25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통근버스도 운행할 예정으로 3개 업체 근무조건이 모두 동일하다.

시는 이후에도 추가로 구인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알선할 예정으로, 3개 업체에 면접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전주시청 일자리지원센터(281-2812)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남원교육지원청 춘향골진로직업박람회 개최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은 25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2017 춘향골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 열리는 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마당으로 초·중·고생 2500여명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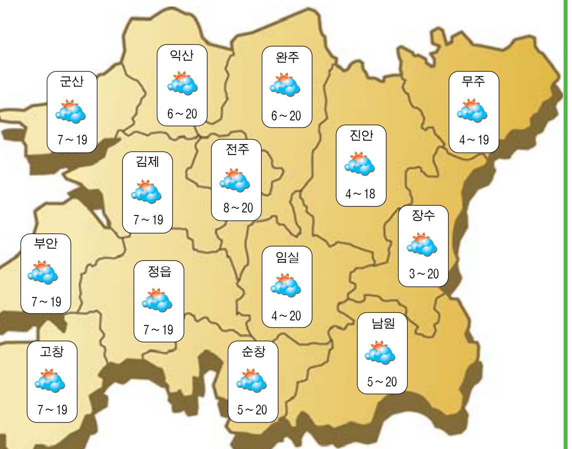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관내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직업체험을 하는 관공서체험마당 등 다섯 마당의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팟 캐스트 학부모동아리에서 관내 중학교 방송반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진로 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직접 시연해보는 심리극 버스킹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박람회로 운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10월 25일 수요일 해뜸 06:43 | 해짐 17:49 달뜸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4~8도 최고기온 16~20도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

전주시가 지난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전주지역 22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8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교 재학생들의 학업 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온 특수시책이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사대부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신청학교를 직접 찾아가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26개교 977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한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학업 중 학생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미 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로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정읍 소성중 푸드리머 동아리 '밥알이' 청소년 식품·외식 진로 경진대회 결선 진출

정읍 소성중학교 푸드리머 동아리 '밥알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푸드 관련 진로체험 및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기업탐방-멘토링-경진대회 등 총 3단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식품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소성중학교는 우리 농산물인 쌀을 주 재료로 누룽지와 초코릿을 결합한 '누룽지 인더 초코'와 밥알을 활용한 '버브리스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여 그 창의성을 인정받아 결선대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

진로담당 서진용 교사는 "열심히 준비해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면서 "결선에서 학생들이 만든 제품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고작 17명인 소규모 농촌학교에서 이룩한 이번 쾌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러 농촌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